

인상 확률이 한 주 만에 반토막 났다

— 67%에서 32%로, 사흘 연속 지표가 같은 쪽을 가리킨 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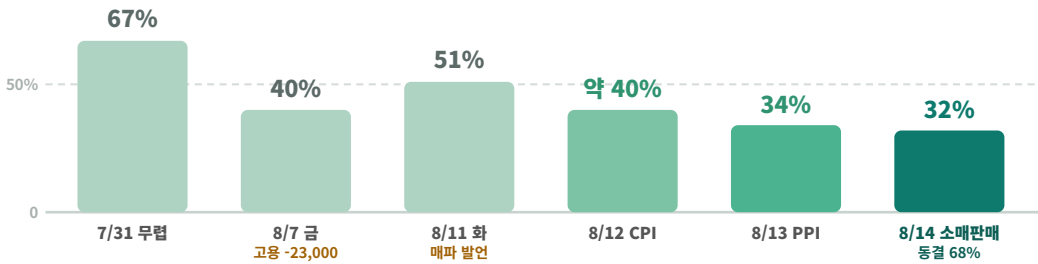
화요일 밤 AI 데이터센터 3사 실적으로 시작해 수요일 소비자물가, 목요일 생산자물가, 금요일 소매판매·소비심리까지 **나홀 내리 숫자가 쏟아진 한 주**였습니다.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주 초 51%에서 **32%**로 내려앉았고, 7월 말과 견주면 67%에서 반토막입니다. 코스피는 **5거래일 연속** 올라 장중 7,000을 찍었습니다.

① 한 주 타임라인

날짜	무슨 일이 있었나	9월 인상 확률	호수
8/11 화	루멘텀·슈퍼마이크로·코어위브가 장 마감 후 동시에 실적. 매출은 셋 다 두 배 안팎인데 셋 다 "물건을 못 대고 있다"고 밝힘. 같은 날 클리블랜드 연은 해택 총재 매파 발언	51%	42
8/12 수	7월 소비자물가 헤드라인 3.4%·근원 2.5%. 네 항목 전부 예상 부합. 3사 증가는 루멘텀 +15%·코어위브 +20%·슈퍼마이크로 +16%	약 40%	43
8/13 목	7월 생산자물가 헤드라인 월간 0.0%·연간 4.7%로 세 항목 전부 예상 하회. S&P500이 7,798.99로 사상 최고, 7,800 첫 돌파	34%	44
8/14 금	7월 소매판매 -0.6%, 미시간대 8월 소비심리 51(예상 55). 미 증시는 사상 최고에서 되돌림.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상승	32%	45

확률은 CME FedWatch 기준으로 각 날짜의 보도 시점 값입니다. 집계 스냅샷 시각에 따라 1%p 안팎 차이가 납니다(8/13은 34~35%로 갑니다).

② 인상 확률, 한 주 꺾적



9월 FOMC 인상 확률(세로막대, CME FedWatch). 인하가 아니라 인상입니다. 8/11 매파 발언으로 51%까지 되올랐던 게 사흘 만에 32%로 내려왔습니다. 우리는 금리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— 시장이 값에 얹어 둔 확률의 관찰입니다.

③ 금요일에 성격이 바뀌었다 물가만 식은 게 아니다

7월 소매판매 (전월比) -0.6% 월드컵 효과에도 감소 · 1년여 만에 최대 낙폭	미시간대 소비심리 (8월 예비) 51 예상 55 하회	달러인덱스 (8/14) -0.27% 두 지표 발표 후 하락
---	--	---

수·목의 물가 지표와 금요일 지표는 **인상 확률을 같은 방향으로 밀었지만 이유가 다릅니다**. 물가가 식은 건 "올릴 필요가 줄었다"는 쪽이고, 소비가 식은 건 "올리면 위험하다"는 쪽입니다. 앞의 것은 좋은 소식으로 읽히고 뒤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.

미 증시가 목요일 사상 최고를 찍고 금요일에 되돌린 것도 이 대목과 겹칩니다. 다만 **하루 -0.2%는 되돌림이라 부르기도 작은 폭**이고, 소비 둔화가 증시에 본격적으로 반영됐다고 볼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.

④ 미 증시 — 사상 최고를 찍고 소폭 되돌림

지수	8/14 증가	당일	주간	비고
S&P 500	7,785.76	-0.2%	+0.4%	8/13 7,798.99로 사상 최고·7,800 첫 돌파
나스닥	26,729.16	-0.3%	3주 연속 상승	—
다우	53,732.41	-0.2% (-107.58p)	-0.6%	주간으로는 셋 중 유일한 하락
러셀 2000	—	—	—	8/13 3,067로 사상 최고, 연초 대비 +23%

⑤ 코스피 — 5거래일 연속, 장중 7,000을 찍었다

